

방송 단신

일본속의 한국불교  
bfn 현지 촬영 돌입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태웅)은 내년 3월 1일 개국에 특집방송을 다뤄온 「일본속의 한국불교」의 현지제작에 들어갔다.

내년 3월1일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될 이 프로그램은 총 3부작으로 일본불교에 대한 영향을 끼친 한국불교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보여주게 된다.

14일15일 일정으로 현지 제작되고 있는 「일본속의 한국불교」는 동국대 장희욱(불교학)교수와 홍하상(사상학)의 자문과 글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최세영PD와 이상원 카메라맨 등이 참여한다.

「일본속의 한국불교」는 오사카, 나라, 교토, 도쿄 등 지역의 주요사찰인 사천왕사, 비조사, 동대사, 법흥사 등의 사찰을 탐방해 불교문화재를 소개하고, 가미다 시계오 교수 등과의 대담을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증명할 예정이다.

불교 문화 소개

BBS 「오늘을...」

불교방송(사장·김태호)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에서는 14일부터 19일까지 김재홍(경희대·국문학)교수를 초청, 불교문화의 시대별 흐름과 경향을 소개한다.

첫날 불교문화이란 무엇인지 불교문화의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 근대문화에서 현대문화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의 의미와 작가들의 성향을 짚어 본다.

아시아 문화 탐험

Sbs 창사 특집

SBS 창사특집 문화대탐험 「아시아 4만Km」를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0부작으로 매주 화요일 10시 55분부터 11시 50분까지 방송한다.

아시아 문화권의 통일성을 확인해 보는 대장정 「아시아 4만Km」은 양자강 중심의 아시아가 아닌, 매봉강 시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아시아 탐사를 보여준다.

호도 관련 특집 마련

KBS 제1라디오

KBS 제1라디오는 자녀교육 특집기획 「호,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을 3부로 제작,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9분까지 방송한다.

구독신청: 737-8881

“공연일정 연말까지 짝 찼어요”

초청공연 봉사활동으로 동분서주

대한불자가수회



◇ 불자가수회가 군 부대를 방문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맨우측부터 김중국, 장미화, 진승남, 설봉선, 남궁옥분, 남진씨들

매일 정기법회 통해 신심도 다져

도필선 기자

대법회, 제가동 천보원의 일곱 보살 봉안 축하공연도 성대하게 가졌다.

불자가수회는 또, 지난 8일 부산 KBS홀에서 가졌던 설봉선님의 도예전에서 특별회원 유영우(전 WBA세계 챔피언)씨와 김병찬 아나운서가 함께 해 부산 불자들의 불심에 등불을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교도소 위문도 계획하고 있어 불자가수회의 수월은 연말까지 짝 짝하다.

진승남회장은 “바쁘게 살아가는 저지 가수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불교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불자가수회의 노래수가 사부대중의 마음이 괴롭거나 기쁠때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커다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며 자리를 빛낼 수 있고 작은 정성으로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라도 불자가수회를 불러 달라고 당부했다.

불자가수회는 다보빌딩(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기법회를 갖는다. 이 법회에는 불자가수들의 바쁜 일정관계로 1백여 회원중 30여명 정도의 회원이 동참하고 이 정기법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신심다지기의 도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성지순례회나 콘서트 초청법회를 정기적으로 가져 적극적인 신심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불자가수회의 활동에 빠질 수 없는 특별회원이 있다. 유영우씨와 매일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양산에서 올라오는 김중수 통도사 청년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회원들이 이 같은 뜨거운 동참의 열기에 힘입어 고아원, 양로원의 복지기관 방문을 비롯, 해외불자들을 위한 위문공연, 자체법당 마련 계획, 불교TV 개국에 따른 불자가수회 활동 활성화, 환경보호·전통문화계승 캠페인사업 추진등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계획중이다.

대중가요로 대중을 즐겁게 해 줌으로써 삼속의 기쁨을 전해주는 불자가수회는 대중가요 작곡가가 작곡한 찬불가의 취입도 수월하는 신심단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X세대층의 젊은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폭넓은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안도 검토중이다.

종단 쇄신 방향 다각적 모색

태고종, 29일 중앙총회 개최

한국불교태고종 제69회 정기중앙총회(의장 박산)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의 회기 일정으로 중앙불교회관 설립장에서 개최된다.

총회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열리게 되는 정기중앙총회에는 태고종 중앙총회의원과 종단 간부스님 및 전국 주요사찰 주지스님 등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안건으로는 △95년도 종단 사업 계획안 △95년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 △종법(법인)관리법, 사찰법 제정안 △기

타 종단협안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중교화 종단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대중교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불교 경총종단으로서 위상과 면목을 회복하고 일신하기 위한 종합적인 종단발전책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는 또 중앙법인이었던 한국불교태고종 유지재단이 별도의 독립법인인 한국불교태고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법인관리법과 사찰법 등 일부 종법을 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행된 이날 대법회에는 삼귀의 반야심경 약력보고 현향현화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법회를 마치고 정지하 선암사 주지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가 그 법맥을 계승하고 우리 종단과 선암사가 부처님의 해명을 면면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종중조이신 대각각사의 큰 은혜와 공덕”이라고 말하고 “오늘 대법회를 계기로 우리는 대각각사의 도덕과 정신을 본받아 이 나라의 불교를 발전시키고 종단과 선암사를 다시 중흥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각각사 탄신기념 대법회는 해마다 음력 9월 28일 탄신일을 기해 선암사에서 올리고 있다.

연변서 불교연구 재개

덕전스님, 「불학 연구회」 설립



◇ 덕전 스님

중국 연변지역에서 1946년 종교청산 작업 이후 50여년만에 불교학 연구가 공식적으로

재개됐다.

연변불학연구회(회장·강명산)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의 정식 비준을 받고 불교학 및 불교관련 제반학문과 조선민족의 문화, 역사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5월12일 연변대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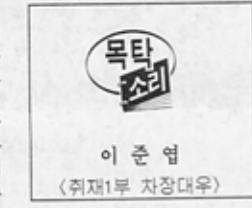
연변불학연구회 성립의 산과 역을 맡았던 덕전스님에 따르면 불학연구회 활성화 외에도 연길 시내에 국생사(國生寺) 복원 및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각각사 기념대례 “위업본반자” 다짐

대각각사 제939주년 탄신기념 대법회가 지난 1일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됐다. 선암사 총무스님의 사회로

조계종이 다시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날 31일 총무원장 선거공고와 함께 7일에는 새로운 중원중법에 따라 교구별로 중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어 8일에는 중앙총회 직능대표 20명과 비구니스님 10명이 중회의원으로 확정됐다. 9일부터 시작된 총무원장 후보 등록은 당일 새벽부터 후보자들이 선관위를 찾아 선거본위가

있을때 발전이 있기때문이다. 또한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진다는



조계종 선거와 언론

달아올랐다. 후보등록과 함께 후보자들은 공장 공백을 발표하고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불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불교계의 인물을 기억하고 있다. 스님을 알아보고 불교계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관심이

거기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만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후보 당사자의 뜻과는 달리 선거운동에 펼치는 주변인들에 의해 상대방을 음해하는 등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이 공개될까 우려스럽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가의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스님들의 일

은 특징인을 제외하고는 재가불자나 일반인의 관심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굳이 불교계가 스스로 자청하여 일반에게까지 선거 모습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다.

오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이 선출된다. 언론으로 인해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자숙을 기대해 본다.



산림보호 눈부신 활동 태국 프라차크스님

태국의 프라 프라차크 스님이 산림보호를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어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TURNING WHEEL지에 따르면 프라차크 스님은 소규모의 벌목을 막는 방법으로 나무에 상처를 준 것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방법도 탐색하고 있다. 스님은 특히 지역삼림순찰을 조직하여 불법적인 벌목을 증명해 보이거나 통령을 증명함으로써 삼림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프라 프라차크 스님은 또한 태국과 서구의 환경론자들과 함께 환경문제의 각성을 촉구 하고 건설적인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삼림감축구역 운동 및 비폭력적 방법의 강연회를 이끌기도 했다.

경제적 압력으로 젊은이들이 도시에 직장을 구하려 떠나자 프라차크 스님은 청년 보호단계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청년들에게 흙을 밟아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숲을 재생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시골에서의 생활이 경제적 생존에도 유익한 선택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미영 기자)

찬불가 CD제작 일본 경도 불교대학

일본 경도(京都)불교대학이 찬불가를 수록한 CD(불교성가)를 제작, 지난 22일 개고기날에 맞춰 선보였다.

교도 불교대학이 만든 찬불가 CD는 20cm 크기의 관형으로 70분 분량이다. 전체가 4부로 나뉘어져 1부는 신작 음악법요연송성가집, 2부는 국가 음악법요연송성가집, 3부는 교가, 4부는 부처님 올날에 등 생활 찬불가 25곡이 담겨져 있다.

티벳난민촌 병원설립 DIC 지원 내년1월 완공

티벳난민촌에 일본의 본원사 계열 다나 인타내셔널센터(DIC)가 건립하고 있는 병원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나 인타내셔널센터(DIC)가 건립하고 있는 병원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자 중일일보에 따르면 DIC가 지원해 건설 중인 이 병원은 중앙인도 판다라 지구에 있으며 내년 1월에 개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DIC는 내년에 정착하고 있는 티벳난민을 돕기 위해 뜻있는 승려들이 88년에 결성한 후원 단체이다.

Advertisement for '부처님像 진주메달리온' (Buddha Image Pearl Medallion). It features several medallion designs and their prices. Prices range from W295,000 to W499,000. Includes contact info: 전화 (02) 439-6128-9.

Advertisement for '손조각 칼라채색으로 빛은 이조백자' (Hand-carved Kalra coloring, light is Ijo white porcelain). It features a large vase and lists the artist's bio and contact info. Prices range from W520,000 to W390,000. Includes contact info: 전화 (02) 439-6128-9.